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

(사도행전 19:35-20:6)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가 군중을 선동하여 도시 전체에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성난 군중은 두 시간 동안 함성을 지르며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위협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신자들에게는 뼈저린 공포였습니다. 에베소의 사태는 흥분한 군중이 일으킨 우발적인 소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 할 때 닥친 위기는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살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장한 채 즉결 처형을 노리는 폭력 집단과 같은 위협이었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휩싸이거나 사역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견고함은 단순히 수양을 쌓거나 오랜 신앙 경력을 가졌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일행이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내면이 성령으로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내면이 약하면 사소한 비난이나 작은 반대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면이 견고하면 수만 명의 대적이 에워싸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붙드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천만인이 둘러 진을 쳐도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바울 역시 살해 위협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헬라 즉,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위대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그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환난을 기뻐한다고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성품의 연단을 이루며, 연단은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이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풍성하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채우는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가득 찰 때, 성도는 어떤 극심한 환난도 이겨낼 내적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명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개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의 위험천만한 폭동 현장에서 이성적이고 권위 있는 서기장이 갑자기 나타나 무리를 진정시켰습니다. 서기장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간섭이었습니다. 또한 통신 시설이 전혀 없던 시대에 유대인들의 살해 공모가 바울의 귀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살해 계획을 미리 알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 몰랐다면 바울은 뱃길에서 아무도 모르게 수장되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기에 바울은 바닷길을 포기하고 육로인 마게도냐로 멀리 우회했습니다. 인생의 길이 곧게 뻗지 않고 멀리 돌아간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자의 돌아가는 여정 속에는 언제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살해 음모가 미리 알려져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에 지쳐 이방 땅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블레셋 왕 아기스의 호위대장이 되었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에 참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동족을 향해 칼을 겨누면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장군들이 과거 다윗의 명성을 기억하며 의심을 품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장군들의 의심 덕분에 전쟁에서 제외되어 극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대적들의 의심조차 다윗을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명자를 결코 환경의 노예로 버려두지 않으시며, 반드시 은혜로 개입하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함께 짊어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결코 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전도 여행을 통해 맺은 열매인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등 신실한 일곱 명의 동역자가 함께 했습니다. 지금 내 곁에 동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걸어온 삶과 사역의 열매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빌립보에서 오랫동안 헤어졌던 의사 누가를 다시 만났습니다. 유대인의 살해 위협 때문에 뱃길 대신 육로로 돌아갔기에 빌립보 교회를 돌보던 누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위기 속 우회가 동역자와의 만남이라는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누가는 이때부터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곁을 지키며 사역을 도왔습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결속된 참된 동역자가 곁에 있을 때 성도는 고난마저 낭만으로 바꾸며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인간의 일시적인 원함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곳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눈앞의 욕망과 원함을 채우려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물과 만나를 얻은 뒤에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끊임없이 징징거렸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악착같은 요구대로 메추라기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그토록 탐닉하던 고기는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지긋지긋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육신의 욕망만 악착같이 채우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 허무와 심판에 이를 뿐 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떼쓰는 헛된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고 진짜 성장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인간의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적 욕망의 성취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자신의 굳은 고집을 꺾고 하늘의 필요를 좇아가도록 훈련하는 믿음의 터전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원함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삶에 스며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주님 앞에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고 간구하는 것이 가장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거센 두려움과 위협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심령 깊은 곳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면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로 개입하셔서 길을 여십니다.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할 때 영혼의 깊은 갈증과 참된 필요가 채워집니다. 허탄한 욕망을 버리고 사명과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의 어떤 풍파와 위기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